

# 광주 오는 수도권 기업들 '취득세 제로' 파격 혜택

### 광주시, 기회발전특구 유치기업 지방세 감면 적극 지원 본점·주사무소·공장 이전 '취득세' 50% 추가 전액 감면 행안부, '특구 이전 1호 기업' 방문 광주형 혜택 벤치마킹

광주시가 수도권에서 광주로 이전한 기업에 '공장 이전 취득세 전액 감면' 등 적극적인 지방세 특례 혜택을 제공해 투자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광주 이전 '기회발전특구 유치 제 1호' 기업을 방문해 광주시의 지방세 특례 혜택 제도에 대해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6일 "이날 오후 순천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이 전국 최초로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빛그린국가산단)로 이전한 'DH오토웨어'를 방문해 '기회발전특구 및 지방세 특례'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우수사례 기업인 'DH오토웨어'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효과와 입주업체 조세지원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빛그린국가산단(모빌리티특구)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인공지능특구) 유치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 주도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구역이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제공되며, 기업 유치, 첨단인프라 구축 등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지방 주도의 특구 개발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지역 이전을 촉진하는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의2)"과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제7조의3)'에 따라 취득세를 75%에서 100%까지 감면받게 된다. 수도권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50%가 경감되며, 광주시는 조례에 따라 추가로 취득세 50%를 경감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광주시의 경우 자체 조례에 따라 25%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광주 모빌리티 선도기업인 'DH오토웨어'는 빛그린국가산단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수도권 공장을 광주로 이전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본점을 이전한 전국 1호 기업인 'DH오토웨어'는 지난해 12월 빛그린국가산단 내 2만4218㎡(7330평) 규모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부품 광주 공장을 완공했다.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을 하나의 화면에 구현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등 300명의 신규 고용도 기대되고 있다. 김대성 광주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GICON 'GCC사관학교 2기' 교육생 모집 421명 지원 3대1 경쟁률

### 1기때보다 경쟁률 크게 높아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GCC사관학교 2기' 교육생 모집 결과 정원 140명에 421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실감 디자인 분야에는 66명이 지원해 최고 경쟁률인 3.3대 1을 기록했다. GCC는 GICON이 운영하는 광주실감콘텐츠쿠브를 뜻한다. 이번 GCC사관학교 2기 교육생 모집정원은 지난 1기 당시보다 10명 줄었지만, 평균 경쟁률은 2.6대 1에서 3대 1로 GCC사관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들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275명으로 남성(146명)보다 많았

고,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지원자는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지난 1기보다 타 지역 거주자들의 지원 비율이 증가했다. GCC사관학교 2기 교육생 선발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전공 분야, 관련 경력, 선수학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GCC사관학교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GICON이 운영하는 글로벌 콘텐츠 인재 양성 교육 플랫폼으로, 실감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 4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2기 교육생으로 선발된 140명은 940여 시간의 단계별 교육과정을 거치며, 교육비 및 수강, 10년 이상 강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특강, 취·창업 연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연계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미래 콘텐츠 산업에서 미래 핵심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2기 교육과정은 오는 3월 13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3월 17일 개강해 7개월간 광주실감콘텐츠쿠브와 고아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운영된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GCC 사관학교 교육생들은 현장 중심형 교육과 기업 연계 인턴십, 실습에 최적화된 아시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교육시설에서 실력을 키울 수 있다"며 "2기 교육생들이 민선 8기 기회도시 광주에서 문화콘텐츠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 조성' 위·수탁협약

### 전남개발공사-곡성군 체결

### 청년 주거 공공주택 70세대 건립

전남개발공사와 곡성군이 26일 곡성군청에서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 조성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은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이다. 총 70세대 규모로 신혼부부형 28세대(64㎡), 청년형 42세대(37㎡)를 곡성군에

주소를 둔 두 주택청년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곡성군은 건립부지 제공, 사업비 예산 확보 등 행정적 지원을 맡을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연내 공동주택의 인허가 절차 이행과 건축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이 곡성군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중진공 호남연수원

### 찾아가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

### 중소기업 14곳 애로사항 청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과 광주지역 본부는 26일 '찾아가는 중진공,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사진> 찾아가는 중진공은 기업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지역 기업의 현장애로를 먼저 파악하고 적시에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지역 기업인 '유한야'에서 열린 이날 프로그램에는 지역 중소기업 14곳과 중진공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다양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유관기관도 참여했다. 정책 설명회에서는 ▲연수사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출지원 사업 ▲외국인 고용지원 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상세한 정책 안내가 이루어졌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필요



에 따른 AI 활용 연수 확대 ▲시중은행의 고금리 정책을 감안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조건 완화 등 정책 제언과 경영 애로사항이 포함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글> 이사는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중진공과 지원사업을 풀러서 도움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찾아가는 중진공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중소기업의 애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BS한양, 여수 묘도에 '수소 클러스터' 조성

### LNG터미널 이어...수소 10만t 생산

BS한양이 여수 묘도에 정부가 추진하는 '에코 에너지 허브' 사업의 일환으로 수소 클러스터(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청정에너지 사업 진출을 가속화한다. 수소 클러스터는 수소 생산, 유통, 소비, 포집·저장·활용(CCUS) 등을 아우르는 시설로, 준공 시 연간 10만 t 정도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BS한양은 기본 수소 생산 시설 외에 필수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자 글로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및 수소 기업들과 기술 투자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전남도는 에너지 클러스터, 그린에너지 사업,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허브 조성 등을 골자로 묘도에 총 15조5000억원 규모의 에코 에너지 허브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 중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목적의 LNG 터미널 건설에는 총 1조4362억원을 투입한다. 완공 시 연간 300만t의 LNG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BS한양과 GS에너지가 각각 60대 40의 자본비율로 건설 공사를 하고 있다. 1기당 20만t급 LNG 저장탱크와 기화·송출설비 외에도 최대 10만 t 규모의 부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1·2호기 탱크 공사에 들어갔으며 2027년 상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BS한양 관계자는 "LNG를 기반으로 한 수소 산업 및 CCUS 등으로 에너지사업을 다각화함으로써, 청정에너지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높여겠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전남중기일자리진흥원 '청년 일자리 창출' 협약

### 목포과학대와...인력양성 등 협력

전남중기일자리진흥원(이하 진흥원)과 목포과학대 LINC 3.0 사업단이 26일 진흥원에 '청년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지역 정주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과 목포과학대는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협

력체계 구축 ▲지역정주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인재양성특화 콘텐츠 개발·운영 및 공동 홍보 ▲인재 육성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보 및 교육활동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이성의 진흥원장은 "지역 내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지역사회에서 적극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스텔라 아르투아, '미쉐린 가이드' 맥주 파트너

###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5'

### 맥주·미식 조화 다양한 프로그램

벨기에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스텔라 아르투아(Stella Artois)'가 세계적인 미식 가이드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5'와 파트너십을 맺고 공식 맥주 브랜드로서 맥주와 미식의 조화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텔라 아르투아는 장인 정신이 깃든 650년 이상의 양조 헤리티지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최상급 원료가 빚어내는 균형 잡힌 맛과 깊은 풍미가 특징이다. 음식과 조화를 이루는 맥주 한 잔이 미식 경험에 완성도를 더한다는 브랜드 철학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미식 프로그램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번 공식 파트너십을 기념해 스텔라 아르투아는 27일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5' 공개 행사에서 시음 부스를 운영해 참석 셰프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스텔라 아르투아만의 차별화된 서빙 기법인 '퍼펙트 서브(Perfect Serve)'를 부스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향후 2년간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 및 셰프들과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식과 조화를 이루어 다이닝 경험을 한층 깊이 있게 만드는 맥주로서 스텔라 아르투아의 가치를 더욱 활발히 알릴 계획이다. 스텔라 아르투아 브랜드 매니저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미식의 즐거움을 한층 빛나게 할 수 있는 스텔라 아르투아의 매력을 더욱 많은 분들이 경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쉐린 가이드는 1990년 자동차로 여행하는 운전자를 위해 다양한 레스토랑과 숙소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이후 매년 익명의 미쉐린 평가원들이 전 세계 공통되고 표준화된 5가지 평가 기준(요리 수준·완벽성·셰프의 개성·조화로운 품마·일관성)을 바탕으로 1~3개까지 별점을 매겨 책자에 담기는 레스토랑을 선정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대기업 오너가 임원 승진 평균 4.4년 걸려

### 일반직원보다 18.1년 빨라

국내 대기업 오너일가가 입사해 임원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4.4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직원과 비교하면 18.1년 빠른 셈이다. 오너일가 4명 중 1명은 입사와 동시에 임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년 결산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88곳을 대상으로 오너일가의 경영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오너일가가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한 대기업집단은 63곳, 인원은 총 212명(남성 175명·여성 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30.4세에 입사했으며 입사 4.4년 만인 평균 34.8세에 임원으로 승진했다. 일반 임원 중 상무 직급 임원의 평균 나이(2019년 9월말 기준)가 52.9세인 점을 감안하면 오너일가의 임원 승진이 일반 직원에 비해 18.1년 더 빠른 셈이다. 이들 중 사장단 이력이 조사된 167명의 경우 입사 후 사장 승진까지 소요된 기간은 12.9년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입사해서 더 빨리 임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세대는 평균 30.7세에 입사해 4.5년 만에 임원을 달고 13.2년 만에 사장단으로 승진한 반면, 자녀세대는 평균 30.2세에 입사해 임원 승진까지 4.3년, 사장단 승진까지 12.5년이 걸렸다. 성별로 비교하면 여성의 승진 평균 소요 기간이 더 짧았다. 남성은 평균 30.0세에 입사해 임원 승진까지 4.6년, 사장단 승진까지 13.1년이 소요됐으나, 여성은 평균 32.6세에 입사해 임원 승진까지 3.3년, 사장단 승진까지 11.4년이 걸렸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41.09 (+10.80)
↑ 코스닥	771.41 (+1.98)
↓ 금리(국고채 3년)	2.591 (-0.005)
↑ 환율(USD)	1433.00 (+2.60) (오후 5시 55분 기준)

### '나이롱 환자' 합의금 차단 車보험 보상·보험료 개선

정부가 차 사고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차단에 보험금 과다 수령을 막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에 따르면 경상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된다.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2023년 경상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000억원으로 오히려 치료비(1조3000억원)보다도 규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향후치료비 관행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환자에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상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